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예수 부활하셨다

-오늘 I, II, III부 예배시 성찬식, 찬양예배시 찬양으로 감사-

우리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며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죽으심에까지 이르는 깊고도 높은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늘 의심하기만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의심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다.

오늘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에 우리 교회는 성찬예식을 거행한다. 우리는 이 성찬을 깊은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받고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예수 부활하셨다." 힘차게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찬양예배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뒤브와의 칸타타 '십자가상의 철언'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오늘 새벽예배는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서울 강남노회 연합으로 은혜중에 드렸다.

목회자 신학 세미나와 열린 교회 프로그램 개강

제21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와 함께 교회에서 '열린 교회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11학기 서울성경대학, 4학기 살롬경로대학, 3학기 서울주부대학이 금주 중에 모두 개강한다.

나는 권위있는 세미나로 이미 자리 메김을 하였고 교회가 열린 프로그램으로 성도와 주민의 평생 교육을 목표로 진행되는 강좌들 역시 훌륭한 교육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준비하며 각 부서에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와 성경을 비롯한 교양강좌를 듣기를 원하는 성도는 사무국으로 신청하기 바란다.

목회자와 교회를 갱신키 위한 뜨거운 열기아래 11년간 진행되어 온 목회자 신학세미나

기도합주단 발족

약 5 명이 한팀이 되어 매주 15분간 모여 7년간 기도하는 기도 합주단이 발족하였다. 다락방안에서, 찬양대안에서, 교회학교안에서, 전도회안에서, 직장이나 지역안에서 등등. 마음과 시간이 맞는 성도 5명이 팀을 이루게 되며 그팀의 이름은 '소망기도합주단' 또는 '바울기도합주단' 식으로 원하는 이름을 붙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3면을 참조하기 바라며 사무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기바란다.

대학 · 청년부 연합 집회

오늘 오후 3시 30분에

대학 · 청년부는 토요일집회를 준비하는 연합집회를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갖는다. 김운호 목사의 말씀과 기도 인도로 대 · 청년 연합으로 구성된 토요일집회 찬양팀의 찬양인도, 필그림 성극팀의 스킷 드라마와 토요일집회 준비위원의 보고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토요일집회가 4월6일(토) 오후4시30분에 시작된다 많은 대학 청년부원들의 참여를 기도하고 있다.

춘계 일제 심방

각 교구별로 시행

춘계 일제 심방이 시작되어 교구별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중이다. 춘계심방은 교구 목사가 각 가정별로 심방을 하며 가정별 기도의 제목과 신앙상담 등을 함께 나누게 되어 성도들이 평소에 기도하고 있던 모든 문제점을 해결 받는 귀한 자리가 된다. 교구간사를 비롯한 교구일꾼들은 교구담당 목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심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18회 군종목사 후보생 수련회

4월2일 우리교회에서

임관 후 복음의 옥도가 되는 군 복음화에 앞장서게 될 군종목사 후보생의 수련회가 4월2일과 3일 양일간 우리교회에서 열리게 된다.

수련회는 특강, 좌담회, 영성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게 되며 이종운 목사는 개회예배와 첫날 영성 훈련을 인도케 된다.

새가족부 한가족 축제

-4월5일 베델하우스-

새 예배당 입당후 등록한 교인들과 함께 하는 새가족부 한마음 축제가 남양주시 베델 하우스에서 열린다. 이 축제는 당회원과 교회 일꾼을 함께 초청하여 한 영으로 한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연합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새가족부와 교회일꾼들의 많은 참가를 통해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태신자를 전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고등부 노방 전도

고등부 집회 후 11시에

고등부(부장: 오광환 집사)는 부활절인 오늘 부활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달걀을 들고 노방전도에 나서게 된다.

다락방장 공부 안내

오늘 4월3일(수) 다락방장 공부는 연합으로 갖는다.

교회는 매월 첫 주 다락방장 공부를 연합으로 갖고 있다. 이날 이종운 목사의 특강과 함께 우지원 집사(3교구) 모범 다락방 사별발표를 갖게 된다.

태신자명단

원종상 백성기 주경희 윤완석 김호성 윤정식 백용호 이진우 이재무 나유진 국예슬 최재훈 조정호 김재영 박현진 하재영 박세진 이동진 이명진 김병운 백성기 원종상 윤완석 최승준 신동권 추지호 원성훈 김의운 남화동 나유진 김영아 권민재 양동우 정혜연 신효문 양승호 (다음주 계속)



2002년
부활절 메시지

부활의 왕이시여



이종운 목사

막달라 마리아는 환성을 울릴만한 모든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전에 모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마리아는 아직도 잊어버린 자, 버림받은 자처럼 행세하는 가련하고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듯 부활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슬픔과 눈먼 상태 그리고 공포로 시작됩니다. 마리아와 같이 간 다른 제자들도 빈 무덤 앞에서 주춧돌이며 천사들과 그들에게 나타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흘만에 다시 사시겠다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슬픔과 절망에 싸여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뻐해야 할 대목에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자리에서 기뻐하는 모순 투성이의 인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고통과 불안 그리고 슬픔과 거짓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일소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고민하며 우는 여인에게 '마리아여' 하며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부르심을 통하여 주님은 마리아를 자기의 것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것이라' (사43:1) 그러므로 주님은 마리아에게 더 이상 울지 말고 두려워말며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찾았으며 언제나 아니 영원히 너는 나의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활의 주를 믿은 것은 자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불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의 초청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상심 중에 산산히 부서져 버린 꿈을 버리고 고향으로 가던 두 사람은 그를 보기도 했고 동행도 했으나 부활의 주로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비로소 저희 눈이 밝아져 그 인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내 가정, 민족과 국가 그리고 우리교회의 주가 되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하신 승리와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악이 선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준 산 교훈입니다. 어둠의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초청에 응하는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축복 받은 부활의 왕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슬퍼하며 고통 당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상처를 보면서 낙심치 않고 오히려 참 위로와 평안과 승리의 부활에 참여할 승리를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가족부에서 맞이하는 부활절

이태현(새가족부)



하얀 목련꽃이 피어날 때면 올해도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따뜻한 봄 공기와 생명으로 돌아오는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 계절과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한다.

이번 부활절은 나에게 지나간 부활절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다. 서울교회에 등록하여 새가족부에서 과거 교회학교에서 배우고 신앙의 토대를 마련했던 하나님, 예수님, 성령 등 기독교에 대한 기본교리를 다시 공부하면서 잊혀졌던 신앙의 원리들을 다시 되새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그 동안 큰 교회가 가져다주는 익명성을 이용하여 교회 뜰 밖고 다니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제와 봉사를 하지 않아 늘 주변인으로서 때로는 외로움을 느껴왔다. 이런 나에게 새가족부는 교인들과 교제하고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더 이상 주변인으로서의 교인이 아닌 참여의 기회를 열어 주었다. 이번 부활절은 그런 점에서 나에게 주는 주안에서의 사랑과 기쁨을 다시 찾은 예수님의 부활인 것이다. 과거 힘들었던 시절의 부활절에 드린 기도를 기억한다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내게도 부활하시어서 건강을 회복 시켜주시고 일자리를 달라"는 기도였다. 그 당시에는 그 기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 애를 태웠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를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오랜 기간 연단시키고 단련시키신 후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그냥 내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고통을 느끼고 미래를 걱정하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할 때도 있다. 또한 세상은 우리를 멸시하고 인간이하의 취급을 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천하보

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이번 부활절을 새가족부에서 맞이하면서 새롭게 주님이 내 마음속에 부활하여 세상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 의지하여 풍랑 속에 빠지지 않고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 드린다.

이 시대를 사는 나의 부활신앙

김복승 집사(1교구)



사탄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의 종교에는 부활이 없다. 사탄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는 진화를 주장한다.

하와에게 속삭이던 그는 지금도 똑같은 소리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 소리는 온 세상에 가득하다.

"깨달으면 당신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영적인 진화를 통해서 그 길에 이를 수 있다. 아니 당신은 본래 하나님이었다고..."

그러나 그런 깨달음은 애초에 없었다. 단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여 사람들에게 내놓은 것뿐이요 사람을 멸망의 자리로 끌어내리려는, 완악한 사탄의 음모일 뿐이다.

골고다 언덕을 넘어 부활의 아침이 왔으니,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주님의 영광이다. 사망을 이긴 첫 열매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날이다.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다. 우리의 생일이요 축제일이다.

그러나 부활의 즐거움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이 참으신 주님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는 바울처럼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세종의 선물 - 기도입주단 (Concerts of Prayer)

고경선 목사(5·6교구 지도, 교구위원회 지도)

지난 3월 6일(수), 이종윤 목사님의 다락방장을 위한 특강시간이 있었다. 불과 30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젊은 목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시간이었다. 아마도 그날 강의 들었던 모든 일꾼들의 가슴에도 불꽃이 점화되었을 것이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

"향후 7년을 드러라" -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의 외침이다. 7년간 계속하여 하나님께 함께 모여 기도하라는 영적인 제안으로 미국에 큰 부흥이 있었다. 기도합주단의 중심내용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다. 약 5명이 한팀이 되어, 매주 15분간 모여야 한다. 다락방안에서, 찬양대안에서, 교회학교안에서, 전도회안에서, 직장이나 지역안에서 등등. 마음과 시간이 맞는 성도 5명이 팀을 이루는 것이다. 그팀의 이름은 '소망기도합주단' 또는 '바울기도합주단' 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이름을 붙이면 된다.

기도합주단은 매주 모여서 기도제목을 나누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반드시 기도노트를 가지고 기도제목을 적고 응답여부를 기록해야 한다. 7년간 유지되는 기도합주단은 동성끼리 모이는 것이 좋다. 개인, 가정, 교회, 조국, 선교 등 모든 것이 기도제목이 될 수 있다. 이종윤 목사님은 속8:18-23의 말씀을 기도합주단의 근거 말씀으로 주셨다. 기도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비전을 회복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비전을 선물로 받았다. '속히 가서'(속8:21) 나의 기도동지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야(속8:21)한다. 이러한 기도의 회복으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속8:22) 바로 지금 속히 가서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서울교회의 성도가 기도합주단의 단원이 되어야 한다. 기도합주단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팀 이름과 단원들을 사무국에 알려주기를 바란다. 아름다운 계절에 기도의 합주로 나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조국을 평안케하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한다.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 뿐입니다.

김광신 장로(엘리아 선교회 회장)



그곳은 '은혜의 집'이라 이름하였다. 지난 23일(토) 엘리아 남선교회에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와 함께 하는 여주 은혜의 집을 방문하여 알콜 중독과 치매로 고생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로하는 작은 행사를 가졌다. 이포다리를 건너면 마을길을 따라 막다른 곳에 이르니 「은혜의 집」관악이 눈에 들어오고 야산에 펼쳐지는 건물들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사셨으나 지금은 늙고 병들어 돌봐주는 가족도 없어 이 곳에서 보호 받고 계시는 노인들과 도착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노년도 성령 충만한 시므온 처럼 지켜주시기를 기도 하였다.

준비한 선물을 드린 후 이·미용 담당은 일일 미장원을 열어 머리를 손질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찬송을 불렀고 목욕을 담당한 3인조는 불편하신 노인 5명의 욕신을 구석구석 씻겨드리면서 새신앙이 되셨네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찬양을 하시는 팀은 노인 분들의 인기를 독차지 하셔서 온몸이 아프다는 엄살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의료활동을 하시는 바람에 귀경시간이 늦어지게 되었다. 청소 팀은 내 집 앞 청소하는 것 같이 말끔히 깨끗하게 청소하였다. 그분

들은 오늘 같이 종합적인 행사를 해주신 것은 우리가 처음이었다고 칭찬해주시면서 작은 봉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몸들 바를 모를 정도로 고마워했고 진심으로 감사한 표시를 할 때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웠다.

약간의 역한 냄새까지 맡아야 하는 인내를 가지면서 노인들을 돌봐드리고 돌아오면서 모든 회원 부부들은 지극히 작은 수고에 스스로 감사했고 아쉬워했다. 할 수 있으면 이런 수고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낌없이 전하는 마음 계속했으면 하는 심정으로 서울로 오는 길에 오정수 장로님의 베델하우스에 들려 푸짐한 저녁식사를 대접받고 집에 도착하니 밤 11시가 넘었지만 이번 기회를 주시고 함께 동행하며 물질로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기도를 드린 후 바쁜 하루를 마감하였다.



▲ 은혜의 집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 병들고 소외된 노인분들을 목욕시키고 이·미용 해드리는 모습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성준경 장로(엘벨루아 찬양대 대장)



세상은 풍요로운 것 같으나 영적 빈곤에 허덕이고 있으며 영원히 살 것 같은 우리의 생명도 언젠가 덧없이 끝나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진리이시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죄와 고통에 억눌린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소망이 되시었습니다. 이 참을 수 없는 기쁨을 할렐루야 찬양대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말씀을 주제로 한 칸타타 '십자가상의 칠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십자가상의 칠언'은 저 유명한 '뒤브와'의 곡이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하신 일곱 마디의 말씀을 주제로 한 7곡과 마지막 'Adoramus Te'라는 합창곡으로 모두 8곡입니다. '십자가상의 칠언'은 예수님과 강도, 군중 등 당시의 모습을 연상시키며 특히 군중들의 함성인 합창은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치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도 같아서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부활의 이 아침,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녁 찬양예배에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신 부활절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꿈의 소재, 부직포.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한다”

이것은 전기설 장로가 경영하는 한국바이린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이념이다. 한국 바이린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부직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용도가 다양하여 자동차의 내장재로, 의류용 신소재로, 또 각종 필터, 심지어는 아기 기저귀의 안감 등에 사용하는 그야말로 꿈의 소재이다. 현재 한국바이린이 생산하는 부직포는 국내에서 60%를 소비하고 나머지 40%는 수출을 하고 있다.

전기설 장로의 고향인 전남, 함평, 가덕에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작은 교회가 있었다. 그가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는 것은 자신이 교회가 있는 마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다. 그의 가정은 외할머니 때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청결한 양심을 가진 디모데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을 전수 받은 것처럼 그도 외조모 적부터의 믿음을 이어 받아 3대째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다.

가난한 시골 청년 전기설은 서울로 유학하여 대학을 다닐 때 돈이 없어서 고무신을 신고 다니며 장학금과 입주가 정교사로 의식주와 학비를 해결하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코오롱 주식회사를 다니다가 대학 은사의 추천으로 한국 바이린(주)의 전신인 (주)제텍스의 과장으로 입사하여 20년 간 외길을 걸어 오며 최고 경영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 한국바이린(주)은 IMF 한파로 회사가 도산 위기를 맞게 되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 독일과 일본이 참여하여 (주)제텍스가 한국바이린(주)라는 다국적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게

교우기업 탐방 - 전기설 장로(12교구)
예수님을 최고 경영자로 모시고



되었다.

가난한 시골 청년이 서울로 올라와 한 회사의 최고경영자가 되기까지 그는 수없이 많은 역경을 견디고 험한 골짜기를 헤매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IMF 한파를 맞은 바로 이듬해인 1998년은 정말 숨가쁜 한 해였노라고 회고한다. 98년 5월 회사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 날, S 중공업이 (주)제텍스의 주식을 오전에 인수하여 간신히 부도를 면하게 되었는데 정작 그 회사는 오후에 도산하였다. 같은 달 인도네시아로 출장을 갔다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일정을 앞당겨 서울에 왔더니 바로 그 날 당시 내전 중이던 인도네시아에 폭동이 일어나 공항이 폐쇄되고 많은 인명 피해가 생겼다는 보도가 났다. 또 work out

대상이 되어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있었다가 간신히 그 대상에서 면제되었는데 바로 이를 뒤 그 조건이 강화되어 마더텅 회사의 존재가 없어질 뻔했다. 하나님은 한 해 동안 그를 이렇게 몰아붙였지만 그러나 그의 등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다시 내려주셨다.

이제는 한국 산업계의 한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뚝 선 기업인으로 선 전기설 장로, 그러나 정작 자신은 리더쉽이 뛰어나지도 않고, 안목이 출중하지도 않으며, 지혜가 많지 않은 사람이라고 겸손을 잃지 않았다.

1977년에 결혼한 원영에 집사와는 당시 섬기던 교회시대, 청부에서 만났고 원영에 집사는 흰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촌티 나는 남자가 청혼을 했을 때 부모님의 반대가 극심했지만 결국은 순수한 그에게 마음을 빼앗겼다고 한다. 슬하에는 지난해에 출가한 성신, 신일 남매를 두고 있으며 김차량 집사, 선연자 권사덕과 사돈지간이다.

전기설 장로는 지금 2교구장으로 장년부와 베들레헴 찬양대, 시온 찬양대를 섬기고 있고 원영에 집사는 중등부 지휘자로 봉사하고 있다.

그는 오늘도 사원들 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여 책상에 앉아 기도하므로 업무를 시작한다. 섬기는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한국바이린이 크리스찬 기업으로 모든 면에 타에 모범이 되기를, 공정한 경영과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이윤을 내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그리고 올 7월에 출산하는 성신이가 순산하기를.....

편집부 (허숙)

한 사람을 찾습니다

손재영(청년부)

조금씩 철이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쉽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평이한 것이지만, 그래도 판에는 대단한 자각이라고 여겨져 뿌듯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한 사람의 소중함, 한 사람의 가치 때문입니다. 이 한사람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한 자각은 나 자신의 성숙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반가운 깨달음입니다. 이 한 사람에 대한 깨달음은 비단 내게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절실한 소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보신 하나님의 태초의 바라심인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니, 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간절한 사랑을 함께 나눌 한 사람,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 사랑을 기뻐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그립습니다. 내 처지 하나 헤아려 줄 수 있는 한 사람의 따스함과 삶과 일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한 사람의 소박한 진실이 그리워집니다. 그 모습이 거창해도 초라해도 상관없이 말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실은 한 사람에 대한 부르심은 주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한 한 사람으로 서는 것. 이제 나의 귀한 것을 드리고 그것으로 기뻐 충족할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주님의 마

<토요집회>는 이런 '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토요집회>에 서울교회 대학, 청년부 지체들을 초청합니다!

초등부 세족식

초등부에서는 종려주일이었던 지난주일 예수님께서 중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을 본받아 세족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초등부실에서 있었던 이번 세족식은 신미숙 목사님의 세족식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있는 후에 목사님이 부장 장로님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의 발을 씻기고 그 뒤에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선생님들이 자기 반 아이들의 발을 씻어주자 처음에는 어색함에 발을 안 씻으려고 도망 다녔던 아이들도 하나 둘씩 앞으로 나와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몇몇 아이들은 끝까지 자신의 발을 내놓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어린이들의 세족식에 참가하여서 그 의미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번 세족식을 통해서 선생님들은 초등부와 어린이들을 중의 모습으로 섬길 것을 다짐했고 어린이들은 그러한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섬기는 모습을 배울 수 있었던 산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일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유치부 - 인형극



▲ 지난주 유치부에서는 나귀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인형극으로 배웠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4월2일(화)군중목사 후보생 수련회 개최설교와 영성훈련 특강을 한다.

☞ 금주의 식식제공: 박두호 장로 · 한성욱 집사 (성도의뜨거운 기도에 감사하며)

☞ 21학기 록희자세미나 간식제공: 인대진 집사, 김경희 집사 가정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기독교방송(HLKY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1학기 록희자세미나 · 성경대학 · 경로대학 · 주부대학을 위하여
2.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